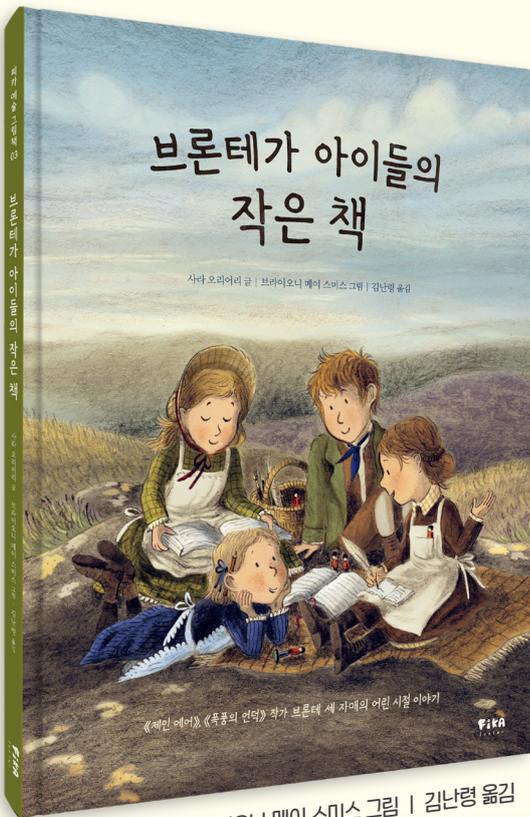


브론테가 아이들의 작은 책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작가 브론테 세 자매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독서 활동지

“사 남매가 쓴 책은 작디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세상은 넓디넓었어.”



사라 오리어리 글 | 브라이오니 메이 스미스 그림 | 김난령 옮김
값 16,000원 | 초등 전 학년

“브론테 자매들이 쓴 이야기는 어쩌서 특별할까요? 그 이야기 속 주인공 역시 가시덤불 같은 시련을 만나지만, 결코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느낍니다. 꿀 발린 달콤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이기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 집필 우서희(서울잠원초 교사, 《철학 버스》저자)



글 © 우서희 그림 © 브라이오니 메이 스미스, 2025

※ 이 독서 활동지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카출판사 홈페이지(<https://fikabook.io/>) 도서목록 > 독서활동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Fika
Junior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브론테가 아이들의 작은 책》의 매력

브론테가 아이들이 살았다는 황무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기에 ‘황무지’라는 이름이 붙었을 테지요. 브론테가 아이들은 황무지의 가시덤불 같은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엄마와 두 언니를 잃었고,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어서 양초도 아껴서 써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브론테가 아이들을 가엾은 아이들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들이 지는 마음에 반짝이는 마법의 가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라는 마법어요.

사람들이 내버려둔 황무지는 브론테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마음껏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너른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들이켜는 것처럼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황무지로 나가 끝없이 펼쳐지는 초록 응단, 그 위에 솟아오른 바위 위에서 아이들은 시를 지었지요. 초를 켜지 못해 어두운 밤에는 연극 놀이를 했고요. 고달프고 허기진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야기를 짓던 사 남매 중 세 자매는 커서 소설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브론테 자매들이 쓴 이야기는 어쩌서 특별할까요? 그 이야기 속 주인공 역시 가시덤불 같은 시련을 만나지만, 결코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느낍니다. 꿀 발린 달콤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로 생각하는 바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는 사람이기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브론테가 아이들이 특별한 이야기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림책 《브론테가 아이들의 작은 책》에서 찾았습니다. 텅 비어 있는 황무지에서도, 엄마와 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야기의 반짝이는 온기를 쬐 어린 시절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도 이야기의 너른 품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불현듯 떠오른 이야기를 신나게 재잘대며 잠이 드는 그런 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서희(서울 잠원초 교사)

학부모,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클럽,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철학 버스》가 있다.

인스타그램: @namuym |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 https://blog.naver.com/namuym_wooseohee



표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4명의 아이가 모여 앉아 놀고 있어요. 이 아이들과 나의 다른 점을 찾아보아요.



브론테가 아이들

나

옷차림

앞치마, 장화, 스카프, 재킷

예시 티셔츠와 반바지

형제자매

여자 3명, 남자 1명

예시 외동

장난감

장난감 병정, 책, 깃털펜

예시 레고

노는곳

뜰판 위

예시 식탁 위

이야기 속으로 여행하기

살럿의 이야기에서 동생 앤은 부잣집 외동딸로 변신합니다. 엄마, 아빠와 런던에 가 멋진 구경도 하고, 바다도 여행해요. 만약에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엄마, 아빠와 함께 어디를 가고 싶나요? 가서 어떤 구경을 하고 싶은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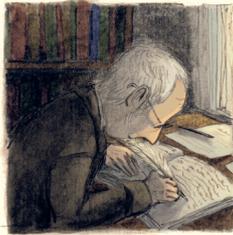
예시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사막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거기서 사냥고 무서운 모래괴물을 만나지만 나의 멋진 무기로 모래 괴물을 물리쳐서 엄마, 아빠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 가족 소개하기

브론테가 아이들은 아빠와 이모, 가정부 테비와 함께 살았어요. 개랑 고양이, 오리도 키우면서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우리 가족과 브론테가 아이들 가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점도 있나요?

사 남매는 아빠와



이모.

가정부 테비와 함께 살았어.



개랑 고양이, 오리도 키웠어. 사 남매가 함께 들봤지.

우리 가족 소개

예시 저는 아빠, 엄마, 할머니와 함께 살아요.

차이점

예시 우리 가족은 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공통점

예시 서로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소개



차이점



공통점



노는 게 제일 좋아

사 남매는 책을 읽고, 시를 짓고, 연극 놀이를 하면서 놀아요. 나는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노나요?
내가 노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아요. 그 놀이를 할 때 어떤 점이 좋은가요?





 **예시** 저는 집에서 레고를 하고 놀아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부서져도 다시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